

다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발돋움

군산시, 1호공약 이행위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민선 8기 교육 공약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출생률 저조와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교육과 일자리에서 찾은 만큼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함께 배우는 교육 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최우선 과제인 교육분야의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는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학습지원 플랫폼으로 개인 맞춤형 온라인 학습, 멘토 매칭 컨설팅 및 학습 중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화상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학생 2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기개발연수비(1인당 10만원)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목표실현을 통한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진로체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문화페이를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지급해 초·중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을 고등학교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동권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높이를 통한 유아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들이 체력·놀이·휴식 등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숲 놀이터를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해 일석오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 5인이 모여서 원하는 학습장소에서 희망하는 학습강좌를 신청하며 강좌에 맞는 강사를 파견하고, 학습매니저는 강사와 수강생 학습장소를 관리, 장소를 제공한 상업시설에는 시간당 2만원의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305강좌, 2만4170명이 수강했으며 4280명의 일자리 창출 및 3752개소 소상공인에게 장소 사용료를 지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운영 중인 마을동아리가 큰 호응을 얻으며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촌 공동체 활력’

익산 마을동아리 육성사업... 30개 마을서 500여명 참여

익산시가 운영 중인 마을동아리가 큰 호응을 얻으며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지속 가능한 마을동아리를 활성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절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농촌활력대학 문화복지 마을동아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을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각 마을마다 주민들의 호응이 커 현재 5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강사진은 지역주민 활동가로 동아리 멘토 역할을 물론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동아리 주제는 풍물과 원예치료, 치매예방체조, 난타 등 다양하며 각 마을에서 원하는 활동으로 정해졌다. 주민이 주체가 돼서 운영되는 마을 동아리인 만큼 마을의 상황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제를 정했으며 운영 시기 도 주민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웅포면 상제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는 풍물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마을 이장이 지도자로 직접 나섰으며 바쁜 농사철에도 수업을 빼놓지 않을 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

성당면 회산마을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리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익산독발 노래 이수자인 마을 이장을 필두로 고선지목동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주민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3년 적용 개별주택 특성 집중조사

군산시는 오는 2023년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 부과와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에 대한 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이번 집중 조사를 위해 2개의 조사년을 편성해 관내 약 3만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세착오를 방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건물의 신·증축, 멸실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무허가 누락, 폐가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특성인 건물구조, 신축년도, 면적, 지목, 용도지역, 도로접면, 토지형상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스포츠클럽, 제1회 아이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익산지역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1회 익산시 I-World cup(아이 월드컵) 대회가 개최됐다.

익산스포츠클럽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27일 금마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아동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다이얼로그 스포츠박스'의 일환으로 지역 6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총 30개 팀, 214명의 아이들이 참가했다.

대회는 전후반 없이 13분씩 진행되었으며 조별 예선 후 토너먼트로 우승팀이 결정됐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개최된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에 학부모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되었다.

김강용 익산스포츠클럽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아이들을 위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 경기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18세 이상으로 확대

mRNA 2가백신 3종으로 백신 선택폭 넓혀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라 백신접종을 일반성인으로 확대한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던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이날부터 18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확대에 기존 모더나 BA.1 접종에서 화이자 BA.1, BA.4/5를 추가접종

할 수 있게 돼 mRNA 2가백신 3종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또, mRNA백신 접종이 곤란한 경우 노바백스·스카이코비도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신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2차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다만 백신별 접종 시작은 백신 허가 및 도입 일정에 따라 상이하다.

27일부터 2가 백신 3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8세 이상 모더나 BA.1 당일 접종도 27일부터 가능하다. 오는 11월 7일부터 화이자BA.1, 모더나 BA.1 예약접종이 시작되고 화이자 BA.4/5 기반 백신접종은 11월 14일 시작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익산시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소는 지난 28일 '지역의료 협의체'를 출범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의료 협의체는 보건소를 비롯한 익산시 의사회장, 약사회장, 지역 내 병원장, 소방서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들은 민·관 의료협력을 강화하여 재유행을 대비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겨울철 트윈데믹(코로나19-계절독감) 대비 일반의료 대응체계 강화,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과 오접종 예방 안내, 의료기관 현장 의견수렴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소아 발열환자 급증 대비 야간·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진료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중·고교생 백제 역사문화 탐방 실시

익산시 애항운동본부부는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고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탐방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이번 문화탐방은 가장 화려했던 백제, 무왕의 꿈이 서린 왕궁리 유적지를 둘러보고 백제왕궁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백제문화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을 방문해 보석의 도시 익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아트 클라이밍 등 다양한 실내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왕궁 포레스트를 방문하여 학습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에게 원예와 족욕 등 다양한 힐링티임을 선사할 예정이다.

탐방은 총 200명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50명씩, 두 팀으로 나눠 5



회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지원과(☎063-859-5177)로 문의하면 되며 세부적인 일정은 학교별로 일정 등을 조율하여 확정된다.

김진대 애항운동본부 회장은 "지역 문화의 소중함과 애항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익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익산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탐방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음주 폐해 예방 기념 행사 개최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센터는 다음달 한 달 동안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과 함께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연발연시 증가하는 음주 사고에 대응해 음주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

됐다.

우선 다음달 11일 열리는 '유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무성(광주 서구 다사랑병원) 원장을 모시고 '알코올 중독의 이해'라는 주제로 비대면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종사자들이 중독 위험성에 놓인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

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 정신건강주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걸기 운동을 하며 중독에 대한 인식과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